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3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31일 (음력 12월 15일) 수요일

국민의당 광주시의원들 “이대론 공멸”

국민의당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창당 기반인 광주지역 광역의원들도 혼란과 고민 속에 세 갈래 생존전략을 모색 중이어서 정치적 분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안철수 대표의 거취에 따라 탈당 여부와 인원은 유동적이고, 탈당이나 무소속을 결행할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 6명은 임시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30일 오전 광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향후 정치적 진로 등을 논의했다.

전체 9명의 의원 중 이은방(북구6) 의장

9명 중 탈당5·관망3·합당1명 ‘각자도생’
국회의원과 동행·안대표 거취 따라 유동적

과 심철의(서구1) 대변인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조영표(남구1) 의원은 일신상 이유로 불참했다.

참석 시의원들은 ‘당이 창당 2년 만에 민주평화당과 ‘안철수-유승민 신당’으로 쪼개지고 당내 분란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대론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데 뜻이 같아지며, 정치적 진로는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각자도생의 길을 택한 셈이다.

의원별로는 탈당파가 과반수다. 시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민중(광산4) 의원을 비롯해 탈당파 장병완 의원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박춘수(남구3) 부의장, 유

정삼(남구2), 조영표(남구1) 의원 또 다른 탈당파인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이은방 의장은 ‘탈당행 열차’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교유문화위원장인 김옥자(광산3) 의원은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 의원을 따라 당에 남기로 했다.

이정현(광산) 운영위원장과 문태환(광산2) 의원은 중재파인 김동철 의원과 뜻을 같이하며 ‘좀 더 지켜 보자’는 입장이고, 구청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모두 고민하고 있는 심 대변인도 탈당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랑 빛는 적십자봉사자들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30일 오전 경기 성남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중부봉사관에서 봉사자들이 소외계층에 전달할 만두를 빚고 있다.

탈당 시기는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창당대회가 열리는 2월1일 전후보다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중앙당 임시전대 이후인 2월5~6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재파 의원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관망과 시의원들도 선뜻 행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파가 내건 ‘안 대표 사퇴’ 카드가 전격 수용될 경우 통합신당에 잔류하지만 거부될 경우 추가 탈당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탈당파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은 7대 의회 임기말까지는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적에 상관없이 4명 이상만 되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양당 체제 유지 차원에서 교섭단체를 꾸릴 방침이다.

김민중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뜻을 같이하는 분위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고 있어 한치 앞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고 박춘수 부의장은 “전당대회 가져본 안 대표의 거취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Photo漫評

후회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해태경 바른정당 의원에게 ‘안철수 대표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최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다음 순서로 출연하는 하 의원에게 남김 말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유승민 대표도 안철수 대표한테 당해 보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혜훈 의원 통해 몇 번 주의를 줬는데 결국 통합을 선택해 안타까운 실정이다.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원내위원장이나 당무위원회 다 지역 위원장 등 막무가내 안철수 열성파 사람들을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것이다.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 의원에게도 “안철수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 사진=뉴시스



전남 소방인력난 심각...김기태의원 “50% 부족인원 충원 시급”

전남지역 소방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태 위원장(순천1·더불어민주당)은 “전남의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 3800명 대비, 50%에 가까운 1900명이 부족해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최소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사우나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화구획, 유류가스를 배출하는 배연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방염성능을 가진 내·외장재 사용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축물 관계자의 자제점검이 아닌 일정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 정밀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과 일선 소방서와 기초자치단체 합동 불법 주차 단속, 소방차 통로 확보 캠페인을 벌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매년 300여명을 선발해 충원할 계획이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법

령 개정 및 강화를 지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방시책을 추진, 도내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재참사 원인규명 명목으로 소방관의 책임으로만 치부되는 여론으로 몰아가는 경찰수사에 대해서도 “완벽하지 못했던 화재진압 대응에 사회적 자대를 내세우면 앞으로 소방의 현장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강원도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평창의 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을 지원합니다